

대학주보

다전공 이수 기준 2~9학점 하향 학업 부담 완화 목적 우려 목소리도 나와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2026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으로 일부 학과의 다전공 이수 기준 학점이 변경된다.

이는 다전공 의무이수제 시행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수학과 ▲생물학과 ▲기계공학부 ▲산업경영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건축공학과 ▲환경학및환경공학과 ▲전자공학과 ▲반도체공학과 ▲생체의공학과 ▲인공지능반도체융합전공은 기존 기준 학점 54학점에서 변경 후 51학점으로 축소된다.

▲물리학과 ▲화학학과 ▲지리학과 ▲정보디스플레이학과(소속학부생 외)는 기존 54학점에서 변경 후 50학점으로 축소된다.

이외에도 소프트웨어융합학과와 인공지능학과는 기존 60학점에서 변경 후 51학점으로, 화학공학과는 기존 53학점에서 변경 후 51학점으로 이수 기준 학점이 축소된다.

교무처 학사지원팀은 “교육과정 편성지침을 통해 졸업학점별 다전공 과정의 권고 이수학점이 안내되고 있으나 학과별 특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전공 확대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학점이 지침 내 권고학점보다 높게 편성되어 있는 학과들을 조정 안내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학과들이 협조하며 다전공 이수학점의 하향 조정이 이뤄졌다.

한편 이번 다전공 이수 기준학점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소프트웨어융합학과 박상근(서비스공학) 교수는 “다전공이라는 것은 부전공이 아닌 전공을 두 개 이상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원래도 본전공생에 비해 이수 학점이 적었는데 거기서 더 줄어드는 것이기에 학업 측면에서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떠나는 사람

지난 25일 평화의 전당과 선승관에서 2025년 전기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따스한 햇살과 붉은 학위복이 어우러져 교정 곳곳을 물들였다. 졸업생들은 준비된 포토존 뿐만 아니라 애정하는 장소를 찾으며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고, 졸업을 축하하는 후배들의 현수막도 가득했다. 손에 든 꽃다발은 들뜬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김진상 총장은 “대학 졸업이라는 끝과 사회인으로서의 출발이 맞물리는 영광스러운 시간”이라며 졸업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이어 학위수여식을 마친 후 이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미소로 배웅했다. 떠나는 사람이 남긴 수년간의 발자국은 이곳에 그리고 우리에게 선명한 꽃길로 기억될 것이다. 이번 졸업자 수는 학부 3,556명, 석사 483명, 박사 154명,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17명이다.

(사진=유진우 기자)



들어오는 사람

지난 27일 서울캠 평화의 전당에서 2026학년도 입학식이 열렸다. 교시탑에서 시작된 단과대학별 퍼레이드는 레드카펫을 따라 이어지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긴장과 설렘이 교차한 표정으로 행진하던 신입생들은 경희의 이름 아래 첫걸음을 내디뎠다. 김진상 총장은 “대학은 삶의 경계를 넓히는 배움의 공간”이라며 공감과 통찰, 회복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기를 당부했다. 가족들은 크라운관에서 실황 중계를 지켜보며 박수로 신입생들을 응원했다. 올해 입학식은 2013년부터 이어진 퍼레이드 전통 속에서 또 하나의 학번을 맞이했다.

(사진=이은서 기자)

사령

면 <편집장>
하시연(미디어학 2023)
<서울 기획·보도팀장>
김규연(무역학 2020)
<국제 기획·보도팀장>
권도연(중국어학 2024)
<미디어팀장>
박서연(시각디자인학 2023)

명 <편집장>
권도연(중국어학 2024)
<지역사회팀장>
원희재(원자력공학 2021)
<서울 기획·보도팀장>
이환희(미디어학 2021)
<미디어팀장>
박류빈(사회학 2024)
<정기자>
김지민(국어국문학 2025)
유진우(체육학 2024)
홍지우(회화 2024)